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6.01~26.06.30)

□ 미국 교통부(DOT), 43개 주 공항 인프라 현대화에 5억 2,300만 달러 투자 발표 [6/1]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는 전국 공항의 인프라 현대화, 안전 개선, 효율적인 여행 환경 제공을 위해 5억 2,3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투자했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공항 인프라 보조금(AIG)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하며, 미국 43개 주의 공항에 총 332건의 보조금이 전달될 예정임
- 또한, 이번 자금을 통해 활주로 재포장, 계류장 및 유도로 개선, 여객 터미널 업그레이드, 수하물 시스템 교체 등 에어필드 핵심 시설 개선에 집중 활용될 예정임
- 이번 지원은 달라스-포트워스 국제공항(7,000만 달러, 활주로 재포장), 살럿 더글러스 국제공항(4,690만 달러, 계류장 확장), 마이애미 국제공항(4,190만 달러, 터미널 재건축 및 저유소 확장), 뉴욕 시라큐스 한콕 국제공항(1,870만 달러, 제빙 패드 확장 및 재건축)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금이 대거 배정될 예정임
- 쏘니 더피 교통부 장관은 활주로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이른바 '교통의 황금기'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함. 아울러 미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첨단 활주로나 공항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힘

□ 미국 교통부(DOT), '첨단연구계획국-인프라(ARPA-I) 아이디어 챌린지' 최종 4개 팀 선정 발표 [6/1]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첨단연구계획국-인프라(ARPA-I)가 주관하는 '아이디어 및 혁신 챌린지'의 최종 결선 진출 4개 팀을 선정·발표함
- 이번 대회는 총 상금 100만 달러 규모로 인프라 현대화, 안전 강화, 비용 절감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민간·공공 부문의 혁신적인 교통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임
- 전국에서 접수된 총 448건의 제안서 중 1단계에서 15개 준결승 팀을 선발했으며, 2단계 상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팀을 확정함
- 결선 진출 4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RCTOS Technology Solutions社は 오하이오주 민간기업으로 박테리아와 현지 토양을 활용해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직접 제조하는 기술임. 자재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기상 재해 발생 시 도로 및 인프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기여함
- TruNav社は 일리노이주 민간기업으로 화물 물류 및 트럭 운송의 항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임. 위조 GPS 신호를 탐지하고 교란을 방어하는 회복 탄력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수신기를 개발함
- Lacy Greening社は 애리조나주 개인으로 화물 운송 효율화를 위한 AI 시스템임. 화물 허브와 유통 센터 간의 소통을 개선하여 빈 차 운행을 줄이고 적재 계획을 최적화함
- 테네시 대학교 채타누가 캠퍼스는 아우디, 폭스바겐 등과의 협업으로 구축한 AI 기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임. 차량, 신호기, 기상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도로 상황 업데이트를 공유함

□ **뉴욕시 주택청(NYCHA), 난방 인프라 현대화에 9,060만 달러 규모 투자 발표 [6/3]**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9,060만 달러 이상의 난방 인프라 현대화 자본 투자를 집행했다고 발표함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지속적인 정비 작업을 통해 2021-22년 시즌 대비 난방 및 온수 공급 중단 건수가 총 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이는 2019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와의 협약 체결 이후 추진해 온 전략적 인프라 개선 노력의 결실임
- 이번 인프라 투자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의 5개 공공주택 단지(파라굿, 브라운스빌 등)에 총 9,060만 달러를 투입하여 고효율·저비용의 지속 가능한 난방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10,433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또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 사이에 공공주택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총 56대(2019년 협약 이후 누적 215대)의 신형 보일러를 추가 설치했으며, 안정적인 난방 공급을 위해 2026년 말까지 누적 297대 교체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임
- 에바 트림블 뉴욕시 주택청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난방관리서비스부 직원들이 겨울철 내내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했음을 강조함. 이어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에도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 **미국 연방조달청(GSA), GSA 본부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전액 승인 발표 [6/8]**

-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연방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가 워싱턴 D.C.(1800 F Street NW) 소재 GSA 본부 청사의 개보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전액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이번 승인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본부 청사의 설계 및 건설 단계를 가속화하고, 건물의 자산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확보된 기금을 통해 청사의 장기적 활용과 완전한 입주를 보장하며, 미래형 고성능 공유 업무 공간을 구축해 연방 부동산 관리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예정임
- 연방조달청(GSA)은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도어 루스벨트 빌딩'으로 임시 이전하여 연방인사관리처(OPM)와 사무 공간을 공동 사용할 예정임
- 본 공사는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완공 후 GSA와 OPM 두 기관이 새롭게 디자인 된 본부 청사에 공동 입주할 방침임. 이를 통해 시설 공유를 통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납세자의 예산 가치를 제고할 계획임
- 에드워드 포르스트 연방조달청장은 본부 설계 및 건설 자금을 초당적으로 승인해 준 교통인프라위원회에 감사를 표함. 또한, 청장은 이번 승인이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반영한 역동적인 연방 캠퍼스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완공 후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함

□ **미국 교통부(DOT),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강화에 6억 2,670만 달러 투자 발표 [6/9]**

- 미국 교통부(DOT)는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총 6억 2,67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인프라 기금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투자는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다중모달(Multimodal) 화물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함
- 주요 투자 및 지원 방향은 미국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일반 도로와 상업용 우주비행장을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함

- 또한, 트럭 및 버스 운전사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에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였으며, 열차 건널목 안전 기술 업그레이드, 정체·병목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및 교량 보수, 국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해상 고속도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이번 투자는 국가 및 지역으로 중요한 지상 교통 프로젝트에 4억 2,670만 달러를 지원하며, 상업용 차량의 주차 공간 확대에 2억 달러를 지원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변창하는 우주 산업부터 현장의 트럭 운전사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연방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프로젝트를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트럼프의 속도'에 맞춰 핵심 인프라 수요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듈러주택 규제 완화 및 혁신 추진 발표[6/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공장 사전 제작 방식인 모듈러주택(조립식·제조주택)의 혁신 촉진과 공급 확대를 위해 연방 관보에 개정 제안 규정을 발표함
- 이번 규정 개정안은 조립식·제조주택의 정의를 현대화함으로써 늘어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주택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개정으로 다층 모듈러주택 건설 시 상층부 섹션에 대해 이동 및 조립 과정의 필수 요건이었던 '영구 강철 새시' 설치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며, 규정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다층 모듈러주택을 더욱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생산 단가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새로운 정의에 맞춰 '모델 제조주택 설치 기준' 및 '제조주택 설치 프로그램' 규정 등 하위 지침들도 일관성 있게 업데이트할 예정임
- 또한, 통상 'HUD 코드'로 불리는 모듈러주택 건설 및 안전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 건설 활성화를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교통부(DOT),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4,700만 달러 투자 발표 [6/15]

- 미국 교통부(DOT)는 산하 빌드 아메리카 국(BAB)과 함께 민관 협력 기반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전국 27개 주에 총 4,697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함
- 이번 투자는 행정 편의적인 관료주의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 자본과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사회 필수 인프라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해당 자금은 '혁신 금융 및 자산 양도(IFAC)'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며, 각 주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최적의 자금 조달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주요 지원 사례로 펜실베이니아주 교통부에 125만 달러를 지원하여 혼잡 완화 및 안전 개선을 위한 다인승 유료 차로 개발 기회를 모색하며,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도로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카운티 전역의 무선 통신 프로그램 개발을 도울 예정임
- 또한, 텍사스주 덴턴시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첨단 통신,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며, 웨스트바이버지니아주 고속도로국에 약 1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주 소유 교량의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프로젝트 인도 기회를 검토할 예정임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조금 지원이 납세자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함.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민간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는 제도적 도구를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뉴욕시 주택청(NYCHA), 코니 아일랜드 유니티 타워스 현대화를 위한 설계·시공 팀 선정 발표 [6/17]**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코니 아일랜드에 위치한 공공주택 단지인 '유니티 타워스'의 아파트 및 공용 공간 개보수를 담당할 설계·시공팀으로 Fifth Avenue Builders社를 선정했다고 발표함
- 2026년 6월 10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신탁 귀속을 결정한 세 번째 NYCHA 공공주택 단지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알리는 주요 이정표임
- 이번 정비사업은 유니티 타워스 내 1개 동, 총 193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구 및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창문 전면 교체 및 건물 외벽 보수, 주방 및 욕실 전면 업그레이드, 단지 내 안전 및 보안 시스템 강화, 조경 개선, 배관·환기 시스템 업데이트, 각 가구별 난방 최적화 등이 포함됨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설계와 시공을 단일 팀에 통합 발주함으로써 기관 간 조율을 개선하고 조달 기간을 단축하여, 고품질의 공사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레일라 보조그 주택·계획 담당 뉴욕시 부시장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혁신이 시작된 것을 축하하였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공공 투자, 스마트 조달 방식, 주민 의견 수렴이 결합하여 뉴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임을 강조함

□ **미국 교통부(DOT), 미국 자연재해 피해 도로·교량 복구에 18억 6,000만 달러 긴급 지원 발표 [6/18]**

- 미국 교통부(DOT)는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 및 대규모 재난으로 파손된 도로, 교량 등 교통 인프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8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기금을 발표함
-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허리케인 시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피해 지역의 교통망을 신속히 재건하고,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번 긴급 구호 기금 중 9억 8,000만 달러 이상이 허리케인 헬렌 피해에 투입됨으로써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고속도로청(FHWA)이 허리케인 피해에 투입한 총 인프라 지원액은 34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 중 29억 달러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집중 지원됨
- 나머지 재원은 2024년 여러 주에서 발생한 홍수 및 산사태, 2025년 애리조나주 폭우 및 홍수, 미국 서부 지역의 대기천 현상 피해 등 전국 각지의 재해 복구에 활용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재난 발생 시 지도자들의 신속한 기동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도로와 교량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즉각 집행해 커뮤니티 재건을 돕겠다고 밝힘
- 손 맥마스터 연방고속도로청 청장은 교통망 단절이 시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하므로, 파손된 모든 도로와 교량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각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강조함